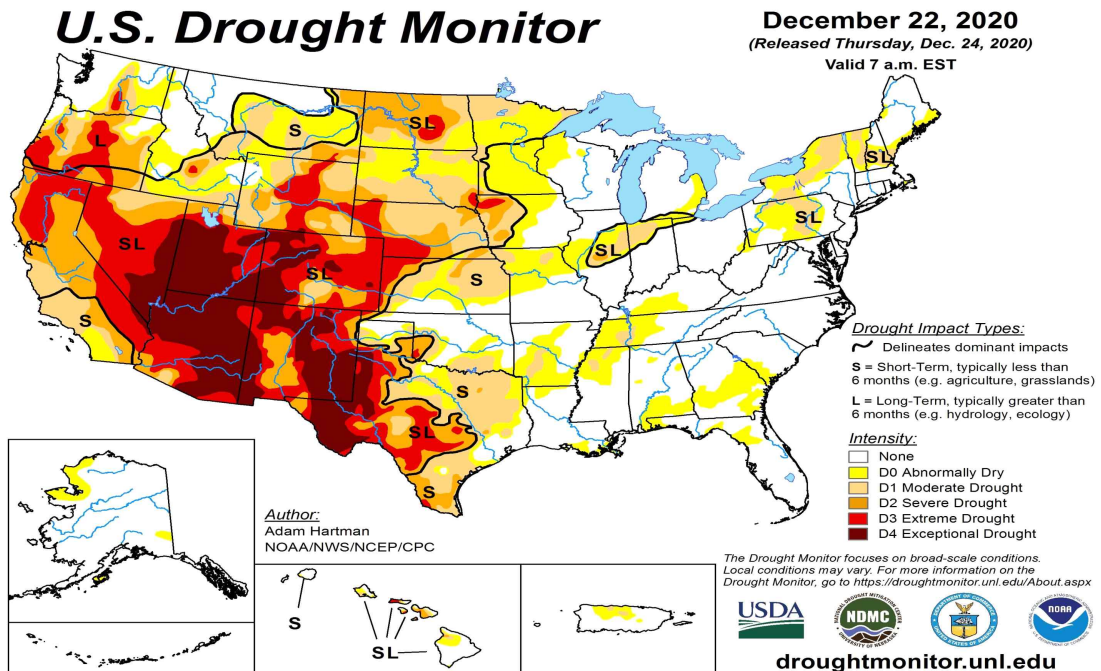


12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52)

□ 미국 기후 현황(12/20~12/26)

대부분의 강수가 주간 늦게 내렸는데, 이 때에 미국 북부를 가로지르는 폭풍 전선 하나가 북서부에 강수를 몰고 와서 12월 23일 중서부 위쪽에 눈보라를 일으켰다. 그 폭풍이 끌고 가고 있는 한랭 전선을 따라서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계 하나가 12월 24-25일, 동부에 폭우(눈으로 변하는 비)를 일으켰다. 한편, 남캘리포니아에서 고평원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을 포함해서 국내의 다른 많은 지역들이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해변풍이 남캘리포니아에 또한 차례 산불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폴브룩 근처에서 크리크 화재가 12월 23일 점화되었고 나중에 캠프 펜들턴으로 퍼져서 4,200 에이커가 넘는 초목을 태웠다. 가뭄은 미국 서부 대부분에서 방목지, 목초지 및 겨울 밀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전히 우려로 남아 있었고, 아울러 높은 고도에 쌓인 눈의 양이 빈약해서 내년 봄 유거수와 저수지 재충전에 대한 전망이 악화될 수 있다. 그밖에, 남동부는 날씨가 추웠던 반면 대조적으로 국내 대부분에 걸쳐서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았다. 플로리다에서 북쪽으로 애팔래치아 남부에 이르는 여러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 F 이상 낮았다. 한편, 뉴 잉글랜드 북부와 고평원의 북부와 중부를 가로질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15° F 높았다. 그러나 주말에 찬 공기의 양상이 극적으로 반전되면서 남동쪽으로 중서부를 가로질러 동부로 이동했다. 12월 26일이 되자 결빙이 깊숙이 남동부로 들어가서 플로리아 북부는 기온이 32° F 이하로 떨어졌다. 탬파에서 올랜도까지 뻗어 있는 회랑의 북서쪽에 동결이 계속되고 있기는 했지만 감귤류, 딸기, 사탕수수 및 겨울철 채소에 대한 큰 동결 문제는 없었다.



## □ 농업 현황 요약 ( )

: 내용없음

## □ 세계 기후 현황(12/20~12/26)

■ 유럽: 광범위하게 내리는 비와 평년보다 매우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밀, 보리 및 유채의 월동에 좋은 조건을 유지되었다. 일련의 폭풍이 대륙을 휩쓸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북부에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칸까지 10~6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의 비를 생성했다. 이 강수는 중부와 동부 재배 지역의 단기 건조를 완화해준 한편 그밖의 곳에서는 휴면 (중부 및 북부) 및 영양기 (먼 남쪽) 중에 있는 겨울 작물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올려주었다. 계절을 벗어난 온기가 유럽 대부분에 만연하여 경작지는 보호성 눈 덮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지만 얼어 죽는 위험을 없애주었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따뜻하고 습한 날씨 (1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었다. 11월은 대체로 건조했지만 12월에는 비가 풍부하게 내려서 재배 조건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이어서 여름 작물들의 수확 잠재력이 올라가고 있다. 먼 남쪽은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및 남호주를 포함한 넓은 면적에 걸쳐서 소나기성 날씨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만연했다. 그러나, 주요 밀, 보리 및 캐놀라 재배 지역을 대체로 건조한 날씨 (대체로 5 mm 미만)가 덮고 있어서 늦칠 수확이 진전될 수 있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서호주의 마지막 겨울 작물 수확을 도왔다. 평균 기온이 서쪽은 평년보다 2~3° C, 남부와 동부 대부분은 2~4°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부는 전체적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계절 야외 작업에 도움을 주었는데, 지난 주에는 적시에 비가 내려서 좀더 균일하게 밭아할 전망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를 가로질러 지역적으로 내린 폭우 (10~50 mm) 대역을 제외하면 그 지역의 대부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파라나 강 계곡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엔트레 리오스 및 산타 페 남부)는 완벽히 건조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라 팜파에서 최고 기온이 잠시 40° C에 도달한 중에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작물의 수분 요구량은 높이 유지되었다. 북쪽으로 더 멀리,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와 살타에서 동쪽으로 파라과이 남부를 통과하는 지역에 폭우 (10~50 mm, 지역적으로 100 mm에 도달)가 내려서 면화와 기타 출현 중인 여름 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중부 같은 곳은 여름 더위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30도대와 낮은 40도대) 때문에 작물의 수분 요구량과 수분의 증발 손실 수준이 높게 유지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23일 현재 옥수수과 대두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76% 및 82% 파종되었다. 면화 파종은, 작년보다 아직은 14 포인트 뒤쳐져 있기는 하지만, 10% 진전되어 81% 완료되었다. 한편, 밀은 작년보다 2 포인트 뒤쳐진 81% 수확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요 생산 주들에서는 밀과 보리가 각각 55% 및 56% 수확되었다.



■ 브라질: 북동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강해지면서 영양기-생식기 대두와 옥수수에게 아주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마란하오에서 남쪽으로 고야스와 미나스 제라이스 전체에 총 25에서 150 mm에 달하는 비가 내려서 남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와 리오 데 자네이로에까지 도달했다고 보고되었다. 마토 그로소 전역에 지역적인 폭우가 산발적으로 내렸지만 마토 그로소 도 술과 상 파울로에서 남쪽으로는 좀더 건조한 날씨 (총강우량이 10 mm 이하)가 우세했다. 지난 주에 유익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절을 벗어난 건조와 따뜻함이 발생하면서 여름 작물들이 간신히 적당한 수분으로 자라고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여름 작물들이 생식기를 지나고 있어서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새롭게 부상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의 정부에 따르면 12월 24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90% 및 93% 과중되었다; 좀 더 일찍 심은 옥수수 작물들의 발달이 가장 많이 진전되어 어떤 곳들에서는 이미 수확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대두는 5%만 개화기에 도달했다.